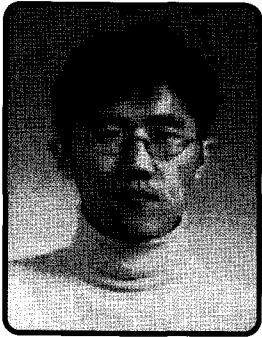


21세기 환경리더로서의 생산자들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



홍수열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간사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생산자들의 전통적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제품의 폐기이후까지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재활용업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하에서의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너무 성급하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다보니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정부, 소비자 간의 합의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너무 시간에 쫓겨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생산자들은 선진국의 환경장벽을 돌파하고 후발국가들의 한국시장 잠식을 방어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흠집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 시행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듯 보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생산자들에게는 당근을 주고, 요령만 피우는 생산자들에게는 채찍을 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해야만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합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과연 생산자들이 얼마나 재활용을 위해서 제품디자인이나 재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이 규제의 일방적 희생자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21세기 환경시대를 열어가는 당당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고쳐나간다면 우리나라 재활용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